BARUN

출제자의 눈으로 원서를 자른다

원서 해부 노트

Peter Singer, Ethics in the Real World · Vol. 2 ANIMALS

대상 미추홀외고 원서 강독반
범위 If Fish Could Scream · Who Is a Person? · Are Insects Conscious?
원서 PDF 52~54 · 57~59 · 64~65쪽
구성 범위 지도 → 유닛별 정밀 해부(6개 유닛) → 실전 변형 모의고사(16문항+서답형) → 파이널

이 권은 한 가지를 묻는다 — "도덕적 배려는 어디까지 넓혀야 하는가."

이 권은 세 편의 칼럼으로 도덕적 배려의 경계를 묻는다. 「If Fish Could Scream」에서 저자는 해마다 1조~2조 마리가 고통스럽게 죽는데도 물고기에게만 인도적 도살 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짚고, 물고기가 고통을 느낀다는 증거를 모은다. 「Who Is a Person?」은 철망 우리에 갇힌 침팬지 토미의 재판에서 출발해, person이라는 말이 처음부터 인간에게만 쓰인 것이 아니며 이제 법이 많은 동물을 인격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Are Insects Conscious?」는 텃밭에서 굶어 죽은 애벌레를 보며 곤충에게도 주관적 경험이 있을 수 있는지 따지고, 곤충 권리 운동보다 척추동물에 대한 진지한 고려를 먼저 마무리하자고 결론짓는다. 세 편은 고통을 느끼고 자기를 아는 능력이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그 능력이 우리의 배려를 어디까지 넓히게 하는지라는 하나의 물음으로 이어진다. 이 노트는 저자의 결론에 동의하라고 하지 않는다. 저자가 무엇을 근거로 어디까지 주장하는지를 네 눈으로 먼저 정확히 찾게 만든다.

학교		학년·반		이름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

HOW TO USE

이 노트를 쓰는 법

해석을 외우는 노트가 아니라, 문제가 나올 자리를 찾는 노트입니다.

네 개의 파트, 한 가지 원칙

파트	무엇을 하는가	언제 쓰는가
Part 1 범위 지도	출제 예상 자리표, 문단별 구조도, 대립 구조표, 숫자·고유명사·인물 총정리표	첫 수업 · 시험 전날 재확인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유닛마다 원서 위치 → 기호 표시 자리 → 내용 → 어법 포인트 → 어휘(유의어·반의어) → 한 줄 요약	수업 본체 · 매 유닛 과제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미추홀외고 유형 순서로 16문항 + 서답형 1문항(100점)	Part 2를 다 끝낸 뒤 시간을 재고 풀기(40분)
Part 4 파이널	핵심 문장 12선 영작, 숫자·고유명사 복원표, 통합 사고 문제(세 편을 잇는 자리)	평가 2~3일 전

원칙 하나 – 원서는 네가 직접 칠한다

- 이 노트에는 원문이 실려 있지 않다. 원서를 옆에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다음, Part 2 표의 자리를 찾아 **기호를 직접 그려 넣는다.**
- 매 유닛 과제: 표를 보기 전에 원서에서 **문제가 나올 자리 3곳**을 먼저 표시하고, 왜 그 자리인지 한 줄로 적어 온다. 수업에서 표와 비교한다.
- 틀린 문제는 "왜 그 오답이 매력적이었는지"까지 적어야 끝난 것이다. 정답 번호만 고치는 복습은 복습이 아니다.

기호 범례

▲ 어법 함정 후보 ● 어휘 반전 후보(반의어 바꿔치기) ★ 빈칸·요약문 후보 ◆ 밑줄 의미·지칭 추론 후보

쪽수는 원서 PDF의 쪽 번호입니다(PDF 쪽 아래에 인쇄된 번호보다 1 큽니다). 단락 번호(¶)는 그 쪽에서 새로 시작하는 단락만 셉니다. 앞 쪽에서 이어지는 단락의 끝부분은 '○쪽 첫 줄'로 표시합니다. 들여 쓴 인용문은 단락 수에 넣지 않고 '○쪽 인용'으로 표시합니다. 에세이 제목은 단락으로 세지 않습니다. 종이책을 쓰는 경우 단락의 첫 단어로 위치를 맞추세요.

PART 1

범위 지도

어떻게 나오는지 알면, 무엇을 공부할지가 정해진다.

1-1. 유형별 출제 예상 자리 – 미추홀외고 유형 기준

미추홀외고 영어 지필평가의 유형 순서(주장·요지·제목 → 밑줄 의미 → 지칭 → 내용 일치 → 어법 → 어휘 → 빈칸 → 문장 삽입 → 무관한 문장 → 순서 → 요약문 → 서답형)를 이 권의 세 편에 적용해, 각 유형이 어디서 나올지 예측했다. Part 3 모의고사는 이 순서를 따른다.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3	주장·요지·제목	법은 많은 동물을 법적 지위를 가진 인격체로 인정해야 한다(58쪽 ¶6 ~ 59쪽 첫 줄) / 물고기는 고통을 느낀다는 증거(53쪽 ¶3~¶4) / 상업 어업과 양식은 상상할 수 없는 양의 고통을 낳는다(54쪽 ¶1) / 곤충 권리 운동은 이르다 – 먼저 척추동물의 이익을 진지하게(65쪽 ¶8~¶9)
4~5	**밑줄 함축 의미**	seemingly at peace with the world / Not for fish. / the forgotten victims on our plate / it is not merely a thing / in the proper sense of that term / a mere object / for no good reason at all / in microcosm / there is nothing that it is like to be that car / carrying compassion to its logical conclusion
6	지칭 추론	he · him · his가 토미와 그 주인 사이를 오가는 58쪽 ¶3 / he(52쪽 ¶2 낚시꾼 vs 아버지) / it(57쪽 ¶3 ignore it = 그 문제 vs it is not merely a thing = 침팬지) / They(58쪽 첫 줄 = 대형 유인원) / It(65쪽 ¶2 = 중앙 신경절) · they(65쪽 ¶3 = 애벌레)
7~8	내용 일치·불일치	770억 · 10 · 125 · 1.5kg · 2019년 추정(53쪽 ¶1~¶2) / 브레이스웨이트 · 2009년 EU 패널(53쪽 ¶4) / 해피 · 산드라 · 우타라칸드 · 콜롬비아 하마(58쪽 ¶3~¶5) / 뉴런 수 · waggle dance · 식물 · 해파리 · 갑각류 · 거미(65쪽 ¶1~¶4)
9~10	**어법**	would(과거 습관) · with + O + p.p. · 지각동사 + O + 원형 · be to V · require that + 원형 · no ~ nor · 전치사 + 의문사 도치 · sufficiently ~ to V · those · 대동사 do · otherwise + would · not only A but also B · all but one · get + O + to V · have + O + p.p. · to V is to V · so + 조동사 + 주어 · deny + IO + DO · 형용사 + as + S + V · 가정법 과거 · 동명사 주어 + mean -ing · may have p.p. · since + 현재완료 · 분사 후치 leading · making · be swarming with · leave + O + alone · 수여동사 수동 · 삽입절 I wonder · let alone · 형용사 + enough to · 의문사절 주어 · so much ~ that · 전치사 + whose
11	어휘(문맥상 부적절)	tranquil ↔ turbulent · humane ↔ inhumane · constrict ↔ loosen · sustainable ↔ unsustainable · reassuring ↔ alarming · attuned ↔ indifferent · myth ↔ fact · detention ↔ release · profound ↔ superficial · arguable ↔ indisputable · unanimous ↔ divided · entitled ↔ ineligible · impersonal ↔ personal · widespread ↔ rare · subjective ↔ objective · probable ↔ improbable · compassion ↔ indifference
12	빈칸 추론	never limited to human beings(57쪽 ¶4) / to count as an entity in one's own right(57쪽 ¶3) / sufficiently similar to those of birds and mammals(53쪽 ¶3) / no regard for the well-being(64쪽 ¶2) / the midbrain rather than the cortex(65쪽 ¶1) / capacity for suffering(65쪽 ¶9)
13	문장 삽입	물고기 수를 세는 방법(52쪽 ¶5 ~ 53쪽 첫 줄): 자망 → 질식 · 몇 시간 갇힘 → 얼마나 많은 물고기인가 → 공식 통계는 종별 톤수만 → 평균 무게로 나누기 → 무드와 브룩의 1조~2조
14	무관한 문장	곤충의 뇌와 주관적 경험(64쪽 ¶4 ~ 65쪽 첫 줄)에 다른 편의 사실(2015년 아르헨티나 법원의 판결, 58쪽 ¶4) 끼워 넣기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5	순서 배열	아버지와의 산책(52쪽 ¶1~¶2): 낚시하는 사람들 → 미끼로 꿴 작은 물고기(Once) → 잔잔한 시냇가의 헐떡이는 물고기(Another time) → 아버지의 말
16	요약문 완성	곤충에게 주관적 경험이 있다면 의식은 훨씬 많다 + 그 경험이 즐거운지 비참한지는 구조로 알 수 없다(65쪽 ¶5~¶7)
서답형	QUIZ(알파벳 완성)	연도 · 인물 · 숫자 · True/False 7문항 → 답의 알파벳을 이으면 한 단어. 부분 점수 없음

서답형 전략 – 글자를 이으면 반드시 '사전에 있는 단어'가 되어야 한다

- 이상한 글자 조합이 나오면 하나는 틀린 것이다. 그 자리를 다시 확인하면 된다. **완성된 단어가 자기 검증 장치다.**
- 숫자가 많다 – 1조~2조 · 770억 · 10 · 125 · 1.5kg · 1,000억 · 5,000억~1조 · 6,270억 · 1,670억(물고기) / 18 · 1(거울 실험) / 3에이커 · 1에이커 · 7명 중 2명(재판) / 100만 · 200억 · 370억 · 1,000경(곤충). 연도도 많다 – 2009(EU 패널) · 2013(토미) · 2015(NIH · 산드라) · 1977(해피) · 2018(우타라칸드) · 2019(fishcount 추정) · 2021(콜롬비아 하마) · 2022(고다 마사노리 실험 · 해피 심리). 2015년과 2022년은 두 번씩 나온다. 인물도 많다(무드 · 브룩 · 브레이스웨이트 · 고다 · 와이즈 · 페이히 · 구달 · 포시 · 데카르트 · 배런 · 클라인). 부분 점수가 없으므로 1-4의 표를 '통째로' 외운다.
- True/False 문항은 원서의 한 단어를 뒤집는다(at least ↔ less than 1.5 kilos, not unanimous ↔ unanimous, midbrain ↔ cortex, have ↔ have no structures, admire ↔ smile at, not launch ↔ launch a campaign). '~일 수도 있다'(may · could · Perhaps · supposedly)를 사실로 바꾼 선지와, 소개된 견해(데카르트 · 페이히 · 반대자들의 희화화)를 저자의 주장으로 바꾼 선지도 조심한다.

1-2. 구조도 – 「If Fish Could Scream · Who Is a Person? · Are Insects Conscious?」 (52~54 · 57~59 · 64~65쪽)

논증형 세 편(사례 → 쟁점 → 반론 검토 → 저자의 결론). 「If Fish Could Scream」은 어린 시절의 기억 → 물고기에게만 없는 도살 규정 → 1조~2조라는 규모 → '물고기는 고통을 못 느낀다'는 생각과 그 반증 → 결론, 「Who Is a Person?」은 토미 재판 → 법적 · 철학적 답 → '투표권까지 주자는 것이냐'는 희화화 반박 → 세계의 판결 → 결론, 「Are Insects Conscious?」는 굶어 죽은 애벌레 → 데카르트의 해법 → 곤충 뇌의 새 모델 → 의식의 범위 → 결론으로 간다. 핵심 축은 **물건 vs 인격체**, 그리고 **고통을 느끼는 능력이 확실한 존재 vs 아직 불확실한 존재**.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52 ¶1~¶2	사례	아버지와의 산책 · 미끼로 꿴 작은 물고기 · 시냇가에서 헐떡이는 물고기 / 아버지 = 물고기를 천천히 죽게 두며 오후를 즐기는 것을 이해 못 함
52 ¶3~¶4	쟁점	먹으려고 죽인다면 고통 없이 = 세계 대부분의 합의 / Not for fish · 트롤선 그물 → 질식 · 연승 50~100km · 몇 시간 의식
52 ¶5~53 첫 줄	규모	자망 → 질식 · 몇 시간 갇힘 / 공식 통계 = 톤수 → 평균 무게로 나눔 · 무드와 브룩 = 해마다 1조~2조 마리
53 ¶1~¶2	비교	새 · 포유류 770억(1인당 약 10) vs 물고기 125 / 간접 소비 · 연어 1kg = 야생 1.5kg 이상 · 6,270억이 죽어 1,670억이 팔림
53 ¶3	반론 검토	고통을 못 느낀다면 안심 → 신경계 유사 · 몇 시간 이어지는 행동 변화 · 짧은 기억은 근거 없는 믿음 · 전기 충격 회피 · 진통제
53 ¶4~¶5	증거	브레이스웨이트『Do Fish Feel Pain?』· 2009년 EU 패널 / 2022년 고다 · 청소놀래기 거울 실험(18마리 중 한 마리 빼고)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54 ¶1	결론 1	왜 잊힌 희생자인가 · 냉혈 · 비늘 · 고통을 소리로 못 냄 / 상업 어업과 양식 = 상상할 수 없는 고통 · 덜 잔인한 먹을거리
57 ¶1~¶2	사례	토미 · 철망 우리 독방 · 2013년 인신 보호 영장 / 플로리다 보호구역 · 기각 → 항소 허가 신청 · 법적 인격은 인간만?
57 ¶3	법적 답	와이즈 = 판례 · 법인 · 강 · 경전 · 모스크 / 항소 불허 · 페이히의 별도 의견 = 단순한 물건은 아니다
57 ¶4~58 첫 줄	철학적 답	person = 로마 기원 · 삼위일체 / E.T. · 나비족 / 구달 · 포시의 유인원 = 관계 · 슬픔 · 자기 인식 · 계획 · 윤리의 싹
58 ¶1~¶2	반론 검토	투표권 · 학교 · 명예훼손 소송이 아님 = 법적 지위만 / 유럽 실험실 · 2015년 NIH → 개인이 가둘 까닭이 없다
58 ¶3	후속 사건	토미 행방불명 · 죽음의 기록도 없음 / 2022년 해피(1977년부터 브롱크스 동물원) · 기각이지만 7명 중 2명 석방 찬성
58 ¶4~59 첫 줄	결론 2	산드라(2015) · 우타라칸드(2018) · 콜롬비아 하마(2021) / 법은 많은 동물을 법적 지위를 가진 인격체로 인정할 때
64 ¶1~¶2	사례	배추흰나비 · 루콜라 · 굶어 죽은 애벌레 / 진화 = 개체의 안녕을 돌보지 않음 · 유신론자에게 던지는 물음
64 ¶3	반론 검토	원죄 설명은 애벌레에 안 맞음 · 데카르트 = 동물은 고통을 못 느낀다 · 개 · 말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 애벌레만이라도?
64 ¶4~65 ¶2	새 모델	독립 신경절 모델 → PNAS · 배런과 클라인 / 주관적 경험 · 자율주행차 / 중뇌 vs 피질 / 곤충의 중앙 신경절
65 ¶3~¶5	범위	꿀벌 100만 뉴런 · waggle dance / 애벌레도 고통을? / 식물 · 해파리 · 회충은 구조 없음, 갑각류 · 거미는 있음 / 1,000경 마리
65 ¶6~¶9	결론 3	즐거움일까 비참일까 = 구조로는 모름 / 자이나교 승려를 존경해야 · 곤충 권리 운동은 아직 · 먼저 척추동물

1-3. 대립 구조표 — 선지는 이 축을 뒤집어서 만들어진다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물고기 도살	다른 동물 — 즉시 의식을 잃게 하거나 즉사(규정)	물고기 — 규정 없음 · 질식 · 몇 시간 의식
물고기 수 세기	공식 통계 — 종별 톤수	한 마리씩이 개체 — 평균 무게로 나눔
물고기의 고통	고통을 못 느낀다(믿으면 안심이 되는 생각)	신경계 유사 · 행동 변화 · 학습 · 진통제 · 2009년 EU 패널
물고기의 기억	기억이 짧다(통념)	근거 없는 믿음 · 행동 변화가 몇 시간 이어짐
법적 인격	인간만의 것 아닌가(판사들의 물음)	법인 · 강 · 경전 · 모스크(와이즈의 판례)
침팬지의 지위	person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있다(페이히)	단순한 물건은 결코 아니다(페이히) / 철학적으로 person(저자)
person의 뜻	person = human being	로마 기원 · 삼위일체 · E.T. · 나비족 · 대형 유인원
person 선언의 뜻	투표 · 취학 · 명예훼손 소송(반대자의 희화화)	가장 기본적인 권리 = 물건이 아닌 법적 지위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법원의 판단	뉴욕 법원 — 토미 · 해피 신청 기각 / 해피 사건은 판사 7명 가운데 2명이 석방에 찬성	아르헨티나(2015) · 인도(2018) — 인정 / 미국 법원도 콜롬비아 하마를 소송 당사자로(증거 조사 목적에 한해)
동물의 고통	데카르트 — 동물은 고통을 못 느낀다	당대에도 개 · 말에는 안 통함 / 포유류 · 조류 연구가 반박
곤충의 신경	독립 신경절이 몸의 마디를 따로 조종(옛 모델)	중뇌 같은 중앙 신경절 · 주관적 경험 가능(배런 · 클라인)
자이나교 승려	서양 — 웃어넘김	존경해야 한다 — 연민을 논리적 결론까지(저자) · 그러나 곤충 권리 운동은 아직

1-4. 숫자 · 고유명사 · 인물 총정리표 — 서답형과 내용 일치는 여기서 나온다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If Fish Could Scream	저자의 어린 시절 = 아버지와 강가 · 바닷가 산책 · 미끼로 꿴 작은 물고기 · 잔잔한 시냇가에서 헐떡이는 물고기
도살 규정	세계 대부분 = 고통 없이 · 즉시 의식을 잃게 / 즉사 / 종교 의식 도살은 교리가 허락하는 한 즉사에 가깝게 · 야생 물고기 = 규정 없음 · 양식 물고기 = **대부분의 지역에서** 없음
trawler / longline / gill net	트롤선 그물 → 갑판에서 질식 / 연승 = **50~100km** 줄 · 수백~수천 개 미끼 바늘 · 몇 시간 의식이 남아 있을 가능성 / 자망 = 흔히 아가미로 걸림 → 질식 또는 몇 시간 갇힘
fishcount.org.uk	**Alison Mood** · **Phil Brooke** · 톤수를 종별 평균 무게로 나눔 · 어림수로 해마다 **1조~2조** 마리
77 billion / 125	FAO = 해마다 먹으려고 죽이는 새 · 포유류 **770억** 마리(1인당 약 **10**) / 하한 1조 기준 물고기 = 1인당 **125** · 불법 어획 · 혼획(bycatch) · 미끼용 산 물고기는 빠짐
연어 양식	연어 1kg에 야생 물고기 **적어도 1.5kg** · 사료 물고기가 더 작아 개체 수 비율은 훨씬 나쁨
2019년 추정	양식 물고기 약 **1,000억** 마리 · 어분 · 어유용 **5,000억~1조** 마리 / 업계에 가장 유리한 추정 = **6,270억** 마리가 죽어 **1,670억** 마리가 팔림
물고기 고통의 증거	신경계가 새 · 포유류와 충분히 비슷 · 몇 시간 이어지는 행동 변화 · 기억이 짧다 = **근거 없는 믿음** · 전기 충격 회피 학습 · 진통제가 증상을 줄임
Victoria Braithwait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어업학 · 생물학 교수 · 아마 누구보다 오래 연구 · 『Do Fish Feel Pain?』 = 고통을 느끼고 생각보다 훨씬 영리
2009년 EU 과학 패널	증거의 대부분(preponderance)이 물고기가 고통을 느낀다는 쪽을 가리킨다
Masanori Kohda	**2022**년 · **Osaka City University** · 청소놀래기(cleaner wrasse) 거울 실험 · 마취한 **18**마리 목에 색깔 반점 · **한 마리 빼고** 모두 자기 목을 긁음
Tommy	침팬지 · 뉴욕주 북부 철망 우리에서 여러 해 독방 · 지금은 행방 모름(주인은 동물원에 팔았다고 하나 기록 없음)
habeas corpus	**2013**년 Nonhuman Rights Project · 라틴어로 "you have the body" · 구금이 합법인지 법원이 따져 보게 하는 영장
플로리다 보호구역	토미를 옮기려던 곳 · 호수 안 **3에이커** 섬에서 다른 침팬지들과
Steve Wise / Eugene Fahey	와이즈 = 프로젝트 **창립자** · 판례(법인 · 강 · 경전 · 모스크) / 페이히 = 별도 의견 · person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있어도 단순한 물건은 아니다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person의 기원	**로마** 기원 · 삼위일체(아버지 · 아들 · 성령) — 하나만 인간 / 「E.T.」의 외계인 · 「Avatar」의 나비족 / **Jane Goodall** · **Dian Fossey**의 대형 유인원
2015년 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 의학 연구에서 침팬지 사용 중단 발표 / 유럽 실험실 = 침팬지를 연구실에서 풀어 줌
Happy	코끼리 · **1977**년부터 **Bronx Zoo** · **1에이커** 우리에 홀로 / **2022**년 심리 · 영어권 최고 법원의 첫 비인간 인신 보호 사건 · 기각, **7명 중 2명** 석방 찬성
Sandra	오랑우탄 · **Buenos Aires Zoo** · **2015**년 아르헨티나 법원 = "대형 유인원은 법적 능력을 지닌 법적 인격체"
Uttarakhand	인도 북부의 주 · **2018**년 고등법원 = 조류 · 수생 동물을 포함한 동물계 전체가 법적 실체
Colombia / 하마	헌법재판소 = 동물의 법적 지위 인정 / **2021**년 야생 하마 불임 시술 사건 · 야생동물 전문가 **2명** · 미국 법원 = 증거 조사 목적에 한해 **Magdalena River**의 하마 공동체를 소송 당사자로
애벌레 / Descartes	배추흰나비 · 루콜라 · 굶어 죽은 애벌레 / 원죄를 모두 물려받았다 = '그렇다고들 한다' / 데카르트 = 동물은 고통을 못 느낀다 · 당대에도 개 · 말에는 받아들인 사람이 거의 없음
Barron / Klein	**Macquarie University** · Andrew Barron = 인지과학자 · Colin Klein = 철학자 · PNAS 논문 = 독립 신경절 모델 거부 · 주관적 경험은 더 널리 · 더 오래
뉴런 수	꿀벌 약 **100만** / 사람 신피질 약 **200억** / 들쇠고래(pilot whale) 신피질 **370억** · waggle dance = 꽃 · 물 · 둥지 후보지의 방향과 거리
의식의 범위	구조 없음 = 식물 · 해파리 · 회충 / 있음 = 곤충 · 갑각류 · 거미 / Smithsonian Institution = 한순간에 살아 있는 곤충 약 **1,000경**(10 quintillion) / 자이나교 승려 = 존경해야(저자)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Ethics in the Real World · If Fish Could Scream · Who Is a Person? · Are Insects Conscious? (원서 PDF 52~54 · 57~59 · 64~65쪽) · 6개 유닛

▲ 어법 함정 ● 어휘 반전 ★ 빈칸·요약 ◆ 밑줄 의미·지칭

2-1 사례와 쟁점 — 물고기에게만 없는 고통 없는 죽음 52쪽 ¶1 ~ 53쪽 첫 줄

원문 위치 원서 52쪽 ¶1 ~ 53쪽 첫 줄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52쪽 ¶1 첫 문장	my father used to take me	도입 사례 — 저자의 어린 시절
▲	52쪽 ¶1 둘째 문장	We would pass people fishing … with struggling fish hooked	would(과거 습관) / with + O + p.p.
▲	52쪽 ¶1 셋째 문장	I saw a man take … and impale it	지각동사 + O + 원형 병렬
◆	52쪽 ¶2 첫 문장	seemingly at peace with the world	밑줄 의미: 죽어 가는 물고기와 대비
◆	52쪽 ¶2 둘째 문장	he could not understand how	지칭: he = 아버지(앞의 he = 낚시꾼)
▲	52쪽 ¶3 첫 문장	if animals are to be killed for food	be to V / 세계 대부분의 합의
▲	52쪽 ¶3 둘째 문장	require that animals be rendered	요구 동사 + that + 원형
◆	52쪽 ¶4 첫 문장	Not for fish.	밑줄 의미 1순위
★	52쪽 ¶4 둘째 문장	nor … for farmed fish	일치 — '대부분의 지역에서'
★	52쪽 ¶4 넷째 문장	50–100 kilometers long	숫자 — 일치 후보
★	52쪽 ¶4 다섯째 문장	likely to remain fully conscious	내용 일치 — '가능성이 크다'
▲	52쪽 ¶5 첫~둘째 문장	in which fish become snared … with their gills constricted	전치사 + 관계사 / with 구문
▲	52쪽 ¶6 첫 문장	On how many fish do humans	전치사 + 의문사 앞으로 → 도치
★	52쪽 ¶6 둘째 문장	each fish is an individual	빈칸 후보 · 동격 that
★	52쪽 ¶6 셋째 문장	divide the reported tonnage by	삽입 1순위 — done this의 내용
★	53쪽 첫 줄	between one and two trillion	숫자 — 서답형 1순위

내용

저자가 어릴 때 아버지는 자주 저자를 데리고 강가나 바닷가를 걸었다. 그 길에서 두 사람은 낚시하는 사람들을 지나치곤 했는데, 줄 끝에 걸려 버둥대는 물고기를 감아올리는 사람도 있었다. 한번은 한 남자가 양동이에서 작은 물고기를 꺼내 아직 꿈틀거리는 채로 빈 바늘에 꿰어 미끼로 쓰는 것을 보았다. 또 한번은 잔잔한 시냇가에서 한 남자가 세상과 평화롭게 지내는 듯한 모습으로 앉아 낚싯줄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옆에서는 이미 잡힌 물고기들이 힘없이 퍼덕이며 공기

속에서 헐떡이고 있었다. 아버지는 물고기를 물에서 꺼내 천천히 죽게 두며 오후를 보내는 일을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저자에게 말했다. 세계 대부분에서는 동물을 먹으려고 죽인다면 고통 없이 죽여야 한다는 것이 받아들여져 있다. 도살 규정은 대개 죽이기 전에 동물을 즉시 의식을 잃게 하거나, 즉사하게 하거나, 종교 의식에 따른 도살이라면 교리가 허락하는 한 즉사에 가깝게 하도록 요구한다. 물고기는 예외다. 바다에서 잡혀 죽는 야생 물고기에게는 인도적 도살 규정이 없고,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양식 물고기에게도 없다. 트롤선의 그물에 잡힌 물고기는 갑판에 쏟아진 채 질식하도록 내버려진다. 연승어업에서는 트롤선이 50~100킬로미터에 이르는 줄에 수백, 많게는 수천 개의 미끼 바늘을 달아 내보낸다. 미끼를 문 물고기는 줄을 끌어올릴 때까지 입에 바늘이 꿰인 채 여러 시간 끌려다니면서도 의식이 온전히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상업 어업은 자망, 곧 물고기가 흔히 아가미로 걸려드는 고운 그물벽에도 많이 기댄다. 아가미가 조여 숨을 쉬지 못하는 물고기는 그물에서 질식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물을 걷을 때까지 여러 시간 갇혀 있을 수 있다. 사람은 얼마나 많은 물고기에게 이런 끔찍한 죽음을 안기는가. 공식 통계는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가 개체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잡힌 여러 종의 톤수만 보고하기 때문에 추정하기가 쉽지 않다. 잔인하게 죽은 지각 있는 존재의 수를 얻으려면 종마다 평균 무게를 알아내 보고된 톤수를 그 값으로 나누어야 한다. 앨리슨 무드와 필 브룩이 웹사이트 fishcount.org.uk를 위해 이 계산을 했고, 어림수로 해마다 1조에서 2조 마리의 물고기가 죽는다고 추정한다.

어법

- **We would pass people fishing, perhaps reeling in their lines with struggling fish hooked at the end of them** : would = 과거에 되풀이된 습관(~하곤 했다). people fishing = 현재분사 후치, perhaps reeling in ~도 people을 설명하는 분사구. with + O(struggling fish) + 과거분사(hooked) = O가 ~된 채로. them = their lines.
- **Once I saw a man take a small fish out of a bucket and impale it, still wriggling, on an empty hook to use as bait** : 지각동사 saw + O + 원형부정사(take와 impale이 and로 병렬). still wriggling = it(작은 물고기)의 상태를 덧붙이는 분사구. to use as bait = 목적의 to부정사.
- **My father told me that he could not understand how anyone could enjoy an afternoon spent taking fish out of the water and letting them die slowly** : how + S + V = understand의 목적어인 간접의문문. an afternoon spent -ing = 과거분사 후치(spend + 시간 + -ing에서 온 구조). let + O + 원형(die).
- **In most of the world, it is accepted that if animals are to be killed for food, they should be killed without suffering** : 가주어 it + 진주어 that절. if절의 be to V = 의도 · 예정(~하려면, ~하게 되어 있다면). be killed = 수동.
- **Regulations for slaughter generally require that animals be rendered instantly unconscious before they are killed, or death should be brought about instantaneously** : require(요구) + that + S + (should) 동사원형. 원문은 첫째 절에 원형 be, 둘째 절에 should be를 썼다(같은 구조). render + O + 형용사의 수동 = be rendered unconscious(의식을 잃게 되다).
- **There is no humane slaughter requirement for wild fish caught and killed at sea, nor, in most places, for farmed fish** : no + 명사로 부정한 뒤 nor + 전치사구로 부정을 이어 감(~에게도 없다). caught and killed = 과거분사 병렬 후치 수식. in most places = 삽입.
- **gill nets—walls of fine netting in which fish become snared, often by the gills. They may suffocate in the net, because, with their gills constricted, they cannot breathe** : 대시 뒤 = gill nets의 풀이(동격). in which = 전치사 + 관계대명사(= where). become + 과거분사 = ~되다. with + O + p.p. = 부대상황(아가미가 조인 채).
- **On how many fish do humans inflict these awful deaths?** : inflict A on B(B에게 A를 가하다)의 on + how many fish가 의문사구로 문장 맨 앞에 나오고 do + 주어가 도치된 직접의문문(도치하지 않은 On how many fish humans inflict ~?는 오답).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reel in	감아올리다	wind in	let out
impale	꿰다, 찌르다	pierce	—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wriggle	꿈틀거리다	squirm	—
tranquil	잔잔한, 고요한	calm	turbulent
helplessly	힘없이, 속수무책으로	powerlessly	—
gasp	헐떡이다	pant	—
slaughter (n.)	도살	butchering	—
render	(어떤 상태로) 만들다	make	—
humane	인도적인	compassionate	inhumane
suffocate	질식하다	smother	—
snare	(덫으로) 걸리게 하다	trap	release
constrict	조이다	tighten	loosen
inflict A on B	B에게 A를 가하다	impose	spare
sentient	지각 있는	conscious	insentient

내용 일치 아버지와의 산책 = 강가나 바닷가 · 미끼 = 양동이의 작은 물고기를 꿈틀거리는 채로 빈 바늘에 · 시냇가 = 낚시꾼은 평화로워 '보임', 잡힌 물고기는 공기 속에서 헐떡임 · 아버지 = 그런 오후를 즐기는 것을 이해 못 함 · 고통 없는 도살 = 세계 대부분의 합의 · 야생 물고기 = 규정 없음, 양식 물고기 = '대부분의 지역에서' 없음 · 트롤선 그물 → 갑판에서 질식 · 연승 = 50~100km, 수백~수천 개 바늘, 의식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 자망 = 흔히 아가미로 걸림 → 질식 또는 몇 시간 갇힘 · 공식 통계 = 종별 톤수 · 평균 무게로 나눔 · 무드와 브룩 = 어림수로 해마다 1조~2조 마리. **지칭** 52쪽 ¶1 them(the end of them) = their lines / it(impale it) = 작은 물고기 / ¶2 his line · he had already caught = 낚시꾼 / he could not understand = 저자의 아버지 / them(letting them die) = 물고기 / ¶5 They(may suffocate) = 자망에 걸린 물고기 / ¶6 these awful deaths = 질식 · 몇 시간 끌려다님 · 갇힘 / done this = 톤수를 평균 무게로 나누는 계산.

> **한 줄 요약** 어린 시절 낚시꾼 곁에서 죽어 가던 물고기를 떠올린 저자는, 다른 동물과 달리 물고기에게는 고통 없는 도살 규정이 없으며 그렇게 죽는 물고기가 해마다 1조~2조 마리에 이른다고 쓴다.

2-2 반론과 저자의 답 – 물고기는 고통을 느낀다 53쪽 ¶1 ~ 54쪽 ¶1

원문 위치 원서 53쪽 ¶1 ~ 54쪽 ¶1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53쪽 ¶1 첫 문장	77 billion birds and mammals	숫자 — 일치 · 서답형 후보
★	53쪽 ¶1 둘째 문장	the comparable figure … is 125	숫자 — 1인당 수치
★	53쪽 ¶1 셋째 문장	does not include … 'bycatch'	내용 일치 — 빠진 것
★	53쪽 ¶2 둘째 문장	at least 1.5 kilos of wild fish	불일치 1순위(at least)
▲	53쪽 ¶2 셋째 문장	the fish used for feed	비교급 강조 / 과거분사 후치
★	53쪽 ¶2 다섯째 문장	627 billion … so that 167 billion	숫자 / so that 목적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53쪽 ¶3 첫 문장	though of course it is not	though 뒤 보어 생략
◆	53쪽 ¶3 둘째 문장	It would then be reassuring	밑줄 의미: 반론 소개
▲	53쪽 ¶3 셋째 문장	sufficiently similar to those of	sufficiently ~ to V / those / 대동사 do
★	53쪽 ¶3 다섯째 문장	It is a myth that fish …	True/False 반전 1순위
▲	53쪽 ¶3 일곱째 문장	that they would otherwise show	otherwise + would
★	53쪽 ¶4 둘째 문장	not only are capable … but also	not only A but also B · 요지
★	53쪽 ¶4 셋째 문장	In 2009, a scientific panel	숫자 — 서답형 후보
★	53쪽 ¶5 둘째 문장	led by Masanori Kohda	인물 · 연도 — 일치 후보
●	53쪽 ¶5 둘째 문장	is attuned to looking for	어휘 반전: attuned ↔ indifferent
◆	54쪽 ¶1 첫 문장	the forgotten victims on our plate	밑줄 의미 — 잊힌 희생자

내용

이 숫자의 크기를 가늠해 보자.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해마다 사람이 먹으려고 죽이는 새와 포유류가 770억 마리라고 추정하는데, 지구에 사는 사람 한 명당 약 10마리꼴이다. 무드와 브룩의 낮은 추정치인 1조 마리를 쓰면 물고기의 같은 수치는 125마리다. 여기에는 불법으로 잡힌 수십억 마리, 우연히 잡혔다가 버려지는 원치 않는 물고기인 '혼획', 연승어업에서 미끼로 바늘에 꿴 산 물고기는 들어 있지 않다. 이 물고기 가운데 다수는 간접적으로 소비된다. 갈려서 공장식으로 기르는 닭이나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것이다. 보통의 연어 양식장은 연어 1킬로그램을 생산할 때마다 적어도 1.5킬로그램의 야생 물고기를 써 버린다. 사료로 쓰는 물고기가 대개 식용으로 팔리는 물고기보다 작기 때문에, 지각 있는 개체의 생명으로 따지면 비율은 훨씬 나쁘다. fishcount.org.uk의 추정으로는 2019년에 양식 물고기 약 1,000억 마리가 길러져 죽었고, 대부분 양식 물고기와 갑각류의 먹이가 되는 어분과 어유를 만들려고 잡힌 물고기는 5,000억~1조 마리다. 양식업에 가장 유리한 추정치를 쓰고 최종 생산물인 물고기의 죽음까지 넣으면, 1,670억 마리를 팔려고 6,270억 마리가 죽었다. 이 모든 어업이 지속 가능하다고 해 보자(물론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물고기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 이렇게 큰 규모의 죽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믿으면 안심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물고기의 신경계는 새나 포유류의 신경계와 충분히 비슷해서 물고기도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다른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줄 만한 일을 겪으면 물고기는 고통을 짐작하게 하는 행동을 보이고, 그 변화는 몇 시간 이어지기도 한다(물고기의 기억이 짧다는 것은 근거 없는 믿음이다). 물고기는 전기 충격 같은 불쾌한 경험을 피하는 법을 배우고, 진통제는 물고기가 그러지 않았다면 보였을 고통의 증상을 줄인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의 어업학 · 생물학 교수 빅토리아 브레이스웨이트는 아마 다른 어느 과학자보다 이 문제를 오래 연구했을 것이다. 그의 책 『Do Fish Feel Pain?』은 물고기가 고통을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믿는 것보다 훨씬 영리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2009년 유럽연합에 의견을 낸 과학 패널은 증거의 대부분이 물고기가 고통을 느낀다는 쪽을 가리킨다고 결론지었다. 물고기는 자신을 별개의 존재로 인식할 수도 있다. 2022년 오사카 시립대학교의 고다 마사노리가 이끈 연구팀은, 다른 동물의 피부에서 기생충을 떼어 먹어서 물고기 몸의 색깔 반점을 찾는 데 민감한 청소놀래기가 거울 속 자신을 알아본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거울은 자기 인식의 고전적 시험이다. 연구자들은 마취한 청소놀래기 18마리의 목에 색깔 반점을 주입하고, 마취에서 깨어난 물고기에게 거울을 보여 주었다. 반점이 있는 자기 모습을 본 뒤 한 마리를 빼고 모두 거울 속 모습의 목이 아니라 자기 목을 긁었다. 왜 물고기는 우리 접시 위의 잊힌 희생자일까. 냉혈 동물이고 비늘로 덮여 있어서일까, 고통을 소리 내어 표현하지 못해서일까. 까닭이 무엇이든, 상업 어업과 양식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고통을 낳는다는 증거가 쌓이고 있다. 우리에게는 덜 잔인하고 더 지속 가능한 먹을거리가 많다.

어법

- **77 billion birds and mammals are killed each year for human consumption—the equivalent of about ten animals for each human being on the planet** : 대시 뒤 명사구 = 앞의 숫자를 바꿔 말한 동격. the equivalent of = ~에 해당하는 것. 주어 77 billion birds and mammals(복수) → are killed.
- **A typical salmon farm churns through at least 1.5 kilos of wild fish for every kilo of salmon that it produces** : at least = 적어도(최소). for every = ~마다. that = 목적격 관계대명사(선행사 salmon), it = salmon farm.
- **627 billion fish were killed so that 167 billion fish could be sold** : so that + S + could = ~하기 위해(목적). fish는 단수 · 복수의 꼴이 같다(여기서는 복수 → were).
- **Let's assume that all this fishing is sustainable, though of course it is not. It would then be reassuring to believe that killing on such a vast scale does not matter** : though 뒤 it is not (sustainable) = 보어 생략. would = 가정의 결과(그렇다면 ~일 것이다). 가주어 It + 진주어 to believe. such a + 형용사 + 명사 어순.
- **the nervous systems of fish are sufficiently similar to those of birds and mammals to indicate that they do** : sufficiently + 형용사 + to V = ~할 만큼 충분히(= 형용사 + enough to V). those = the nervous systems(복수를 받는 지시대명사). they = fish, do = 대동사(feel pain).
- **And painkillers reduce the symptoms of pain that they would otherwise show** : that = 목적격 관계대명사(선행사 the symptoms). otherwise = 진통제가 없다면 → would + 원형(가정의 결과). they = fish.
- **Her book Do Fish Feel Pain? shows that fish not only are capable of feeling pain, but also are a lot smarter than most people believe** : not only A but also B = 동사구 are capable of ~와 are smarter ~의 병렬. 주어 Her book(단수) → shows. a lot = 비교급 강조. be capable of -ing.
- **all but one of them scraped their own throats, rather than seeking to scrape the throats of their reflection** : all but one = 하나를 빼고 모두(but = ~을 빼고). rather than + -ing = ~하지 않고, ~하는 대신. their own = 강조(자기 자신의).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perspective	(제대로 된) 비교의 틀, 관점	context	—
consumption	소비	use	production
discard	버리다	throw away	keep
favorable	유리한	advantageous	unfavorable
sustainable	지속 가능한	renewable	unsustainable
reassuring	안심시키는	comforting	alarming
sufficiently	충분히	adequately	insufficiently
suggestive of	~을 시사하는	indicative of	—
myth	근거 없는 믿음	misconception	fact
preponderance	우세, 대부분	majority	minority
distinct	별개의, 뚜렷한	separate	indistinct
attuned to	~에 민감한, 맞춰진	sensitive to	indifferent to
anesthetized	마취된	sedated	conscious
accumulate	쌓이다	build up	dwindle

내용 일치 770억 = 새와 포유류(FAO, 1인당 약 10) · 125 = 물고기(하한 1조 기준, 1인당) · 빠진 것 = 불법 어획 · 혼획 · 미끼로 꿴 산 물고기 · 연어 1kg = 야생 물고기 '적어도' 1.5kg · 사료 물고기가 더 작다 → 개체 수 비율은 더 나쁨 · 2019년 = 양식 약 1,000억 · 어분 · 어유용 5,000억~1조 · 6,270억이 죽어 1,670억이 팔림(업계에 가장 유리한 추정) · 지속 가능하다는 가정 = 사실이 아님 · 기억이 짧다 = 근거 없는 믿음 · 브레이스웨이트 =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 2009년 = EU 과학 패널 · 2022년 = 고다 마사노리(오사카 시립대) · 18마리 중 한 마리 빼고 자기 목을 긁음 · 냉혈 · 비늘 · 소리를 못 냄 = 저자가 던진 물음일 뿐 답이 아님. **밑줄 의미** It would then be reassuring to believe = 반론(물고기는 고통을 못 느낀다)을 먼저 소개하는 가정 — 저자의 주장이 아님 / It is a myth that fish have short memories = 행동 변화가 몇 시간 이어진다는 앞 문장의 뒷받침 / the forgotten victims on our plate = 먹을거리를 따질 때 물고기의 고통은 고려되지 않는다 / 53쪽 ¶3 they do = 물고기가 고통을 느낀다 / those of birds and mammals = 새와 포유류의 신경계.

> **한 줄 요약** 물고기는 새와 포유류보다 훨씬 많이 죽임을 당하며 신경계 · 행동 · 실험 증거로 보아 고통을 느끼고 자기 인식의 가능성까지 보이므로, 상업 어업과 양식은 상상할 수 없는 양의 고통을 낳는다.

2-3 사례와 저자의 답 — 토미 재판과 person의 뜻 57쪽 ¶1 ~ 58쪽 첫 줄

원문 위치 원서 57쪽 ¶1 ~ 58쪽 첫 줄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57쪽 ¶1 첫 문장	in solitary confinement	사례 — 내용 일치
★	57쪽 ¶1 둘째 문장	In 2013, … habeas corpus	숫자 · 용어 — 서답형 후보
▲	57쪽 ¶2 첫 문장	to get a court to consider whether	get + O + to V / whether절
▲	57쪽 ¶2 둘째 문장	to have him transferred …, where	have + O + p.p. / 계속적 where
★	57쪽 ¶2 둘째 문장	on a three-acre island in a lake	숫자 — 해피는 1에이커
★	57쪽 ¶2 넷째 문장	just for human beings?	쟁점 — 판사들의 물음
★	57쪽 ¶3 둘째 문장	to be a person is to count as	빈칸 후보 / to V is to V
▲	57쪽 ¶3 셋째 문장	and so, too, can a river	so + 조동사 + 주어 도치
▲	57쪽 ¶3 넷째 문장	denied Tommy's advocates leave	deny + IO + DO
◆	57쪽 ¶3 인용 셋째	we will not be able to ignore it	지칭: it = 자유권 문제
◆	57쪽 ¶3 마지막 문장	it is not merely a thing	밑줄 의미 1순위 · it = 침팬지
▲	57쪽 ¶4 첫 문장	difficult as it may be	형용사 + as + S + V(양보)
★	57쪽 ¶4 둘째 문장	never limited to human beings	빈칸 1순위
▲	57쪽 ¶4 넷째 문장	If 'person' meant … would be	가정법 과거
★	57쪽 ¶5 첫 문장	E.T. … the Na'vi in Avatar	예시 — 인간 아닌 person
◆	58쪽 첫 줄	the rudiments of ethics	밑줄 의미 · they = 대형 유인원

내용

침팬지 토미는 뉴욕주 북부의 철망 우리에서 여러 해를 홀로 갇혀 지냈다. 2013년 비인간 권리 프로젝트(Nonhuman Rights Project)는 토미의 감금을 주 항소 법원에 가져가려고 인신 보호 영장(habeas corpus, 라틴어로 '너는 몸을 가지고 있다')이라는 오래된 법적 절차를 끌어왔다. 이 영장은 보통 누군가의 구금이 합법인지 법원이 따져 보게 할 때 쓴다. 토미를 대신한 신청서는 토미를 플로리다의 보호구역으로 옮겨, 호수 안 3에이커 섬에서 다른 침팬지들과 살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처음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신청을 기각했고, 프로젝트는 뉴욕 항소 법원(New York Court of Appeals)에 항소 허가를 신청했다. 그곳에서 판사 다섯 명은 프로젝트의 창립자 스티브 와이즈의 변론을 듣고 나서 번한 질문을 던졌다. 법적 인격은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닌가? 와이즈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판례를 들었다. 민법에서 인격체라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실체로 여겨진다는 뜻이다. 법인이 법적 인격체가 될 수 있고, 강과 경전과 모스크도 그렇다. 법원은 토미의 변호인들에게 항소를 허가하지 않았지만, 유진 페이히 판사는 이 결정에 분명히 의문을 품었다. 그는 별도 의견에서, 인간이 아닌 동물이 인신 보호 영장으로 보호받는 자유의 기본권을 가지느냐는 문제는 심오하고 영향이 크며, 우리 주변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관계에 닿아 있어서 결국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썼다. 그리고 침팬지가 '인격체'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있어도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저자는 더 나아간다. 법원이 법을 침팬지가 인격체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겠지만, 침팬지가 그 말의 본래 뜻에서 실제로 인격체라고 말할 강한 철학적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person'이라는 말은 로마에서 나왔고 인간에게만 쓰인 적이 없다. 초기 기독교 신학자들은 하느님이 아버지 · 아들 · 성령의 '세 위격(three persons)이 하나'라는 삼위일체 교리를 논하며 이 말을 썼다. 'person'이 '인간'을 뜻한다면 이 교리는 기독교 신앙과 대놓고 어긋난다. 기독교도는 그 세 '위격' 가운데 하나만 인간이었던 적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오늘날 공상 과학 영화를 볼 때도 우리는 「E.T.」의 외계인이나 「아바타」의 나비족이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어도 인격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인다. 마찬가지로 제인 구달이나 다이앤 포시 같은 과학자의 글을 읽으면 그들이 그리는 대형 유인원이 인격체임을 알 수 있다. 유인원은 무리 안에서 가깝고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잃은 이를 슬퍼하며, 생각할 줄 아는 자기 인식 존재다. 앞을 내다보고 기대하는 능력으로 미리 계획을 세우며, 호의를 갚지 않는 다른 유인원에게 대응하는 방식에서는 윤리의 싹까지 보인다.

어법

- **The writ is typically used to get a court to consider whether someone's detention is lawful** : be used to V = ~하는 데 쓰이다(be used to -ing '~에 익숙하다'와 구별). get + O + to V = O가 ~하게 하다. whether절 = consider의 목적어(~인지).
- **The Nonhuman Rights Project application on behalf of Tommy sought to have him transferred to a sanctuary in Florida, where he could live with other chimps** : have + O + p.p. = O가 ~되게 하다(him이 옮겨지는 쪽 → transferred). 콤마 + where = 계속적 관계부사(= and there). 주어 application(단수) → sought.
- **In civil law, to be a person is to count as an entity in one's own right** : to부정사 주어 + be + to부정사 보어 = ~라는 것은 ~라는 것이다. in one's own right = 그 자체로, 독자적으로.
- **A corporation can be a legal person, and so, too, can a river, a holy book, and a mosque** : so + 조동사 + 주어 = ~도 그렇다(도치). 원문은 so 뒤에 too를 덧붙여 강조했다. can 뒤에 be a legal person이 생략.
- **Although the Court denied Tommy's advocates leave to appeal, Judge Eugene Fahey clearly had doubts about this decision** : deny + IO(Tommy's advocates) + DO(leave to appeal) = ~에게 …을 허락하지 않다. leave = 허가(명사).
- **While it may be arguable that a chimpanzee is not a 'person,' there is no doubt that it is not merely a thing** : while = ~이긴 하지만(양보). 가주어 it + that절. there is no doubt that = ~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not merely = 단지 ~이 아닌.
- **In fact, difficult as it may be for a court to interpret the law as holding that a chimpanzee is a person, there is a strong philosophical case for saying** : 형용사 + as + S + V = 비록 ~하지만(= though it may be difficult). 가주어 it + 의미상 주어 for a court + 진주어 to interpret. interpret A as -ing = A를 ~하는 것으로 해석하다.

- **If 'person' meant 'human being,' that doctrine would be plainly contrary to Christian belief, for Christians hold that only one of those 'persons' was ever a human being** : 가정법 과거(If + 과거, would + 원형) = 현재 사실의 반대. for = 이유를 덧붙이는 접속사(왜냐하면). only one of + 복수 명사 → 단수 동사 was.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solitary confinement	독방 감금	isolation	—
invoke	(법 등을) 끌어오다	cite	—
detention	구금	custody	release
sanctuary	보호구역	refuge	—
appellate	항소의	appeal (court)	—
precedent	판례, 선례	prior ruling	—
entity	실체, 존재	being	—
advocate (n.)	변호인, 옹호자	supporter	opponent
profound	심오한	deep	superficial
arguable	주장할 수 있는	debatable	indisputable
contrary to	~와 어긋나는	opposed to	consistent with
grieve	슬퍼하다	mourn	rejoice
foresight	앞을 내다봄	forethought	hindsight
rudiment	기초, 싹	beginning	—

내용 일치 토미 = 침팬지 · 뉴욕주 북부 철망 우리에서 여러 해 독방 · 2013년 = 비인간 권리 프로젝트가 인신 보호 영장 · habeas corpus = 라틴어 '너는 몸을 가지고 있다' · 요청 = 플로리다 보호구역의 호수 안 3에이커 섬 · 첫 법원 기각 → 항소 허가 신청 · 판사 다섯 명의 물음 = 법적 인격은 인간만? · 와이즈 = 창립자 · 판례(법인 · 강 · 경전 · 모스크) · 결과 = 항소 불허 · 페이히 = 별도 의견, person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있어도 단순한 물건은 아니다 · 강한 철학적 근거 = 저자의 주장 · person = 로마 기원 · 삼위일체 · E.T. · 나비족 · 구달 · 포시의 대형 유인원. **지칭** 57쪽 ¶1 his imprisonment = 토미의 / ¶2 asked him = 스티브 와이즈 / ¶3 that it is not = 법적 인격이 인간만의 것은 아니다 / He filed = 유진 페이히 판사 / ignore it = 동물의 자유권 문제 / it is not merely a thing = 침팬지 / ¶4 It was used = person이라는 낱말 / 58쪽 첫 줄 they describe = 구달과 포시 / They · Their = 대형 유인원.

> **한 줄 요약** 토미 재판에서 법원은 침팬지의 법적 인격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저자는 person이 처음부터 인간에게만 쓰인 말이 아니었고 대형 유인원이 관계 · 슬픔 · 자기 인식 · 계획 능력을 지녔으므로 침팬지는 본래 뜻에서 인격체라고 본다.

2-4 반론 검토와 결론 — 법적 지위를 넓혀 가는 법원들 58쪽 ¶1 ~ 59쪽 첫 줄

원문 위치 원서 58쪽 ¶1 ~ 59쪽 첫 줄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58쪽 ¶1 첫 문장	Contrary to the caricatures	반론 소개(저자 주장 아님)
▲	58쪽 ¶1 첫 문장	would not mean giving	동명사 주어 / mean + -ing
★	58쪽 ¶1 둘째 문장	considered a mere object	빈칸 · 요지 후보
★	58쪽 ¶2 첫 문장	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숫자 — 일치 후보
◆	58쪽 ¶2 둘째 문장	for no good reason at all	밑줄 의미: 수사의문문
★	58쪽 ¶3 첫~둘째 문장	His owner says he sold him	지칭 1순위 — he가 바뀜
▲	58쪽 ¶3 셋째 문장	He may have died, but as	may have p.p. / 이유의 as
★	58쪽 ¶3 다섯째 문장	since 1977 has been in	숫자 · 서답형 / since + 현재완료
★	58쪽 ¶3 여섯째 문장	the first time that	내용 일치 후보
●	58쪽 ¶3 일곱째 문장	not a unanimous verdict	어휘 반전: unanimous ↔ divided
★	58쪽 ¶3 여덟째 문장	Two of the seven judges	숫자 · True/False
★	58쪽 ¶4 둘째 문장	kept in the Buenos Aires Zoo	서답형 1순위 · 과거분사 후치
★	58쪽 ¶4 셋째 문장	the High Court of Uttarakhand	숫자 · 지명
▲	58쪽 ¶5 둘째 문장	asked a US court to take evidence	ask + O + to V
▲	58쪽 ¶5 넷째 문장	though only for the purposes of	though + 전치사구 삽입
★	58쪽 ¶6 ~ 59쪽 첫 줄	persons entitled to legal standing	주장 1순위

내용

일부 소송 반대자들의 희화화와 달리, 침팬지를 인격체로 선언한다는 것이 침팬지에게 투표하거나 학교에 다니거나 명예훼손으로 소송할 권리를 준다는 뜻은 아니다. 단순한 물건으로 여겨지는 대신 법적 지위를 갖는다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권리를 준다는 뜻일 뿐이다. 유럽의 실험실들은 침팬지의 특별한 본성을 인정해 침팬지를 연구실에서 풀어 주었고, 2015년에는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도 의학 연구에서 침팬지 사용을 끝낸다고 발표했다. 나라의 으뜸가는 의학 연구 기관이 침팬지를 연구 대상으로 쓰지 않기로 했다면, 왜 개인이 아무런 정당한 까닭 없이 침팬지를 가두도록 내버려 두는가. 안타깝게도 토미는 이제 찾을 수 없다. 주인은 토미를 동물원에 팔았다고 하지만 그 동물원에는 토미의 기록이 없다. 토미는 죽었을지도 모르지만, 인간이 아니었으므로 죽음의 기록도 없다. 그래도 비인간 권리 프로젝트는 인간 아닌 동물의 권리를 위한 싸움을 이어 갔다. 2022년 뉴욕 항소 법원은 1977년부터 뉴욕 브롱크스 동물원의 1에이커 우리에서 홀로 사는 코끼리 해피를 대신한 프로젝트의 주장을 들었다. 영어권 사법 관할의 최고 법원이 인간 아닌 존재를 대신한 인신 보호 사건을 심리한 것은 처음이었다. 법원은 이번에도 신청을 기각해 해피는 여전히 브롱크스 동물원에 있지만, 놀랍게도 만장일치 판결은 아니었다. 판사 일곱 명 가운데 두 명이 해피를 풀어 주자는 쪽에 표를 던졌다. 다른 곳에서는 인간 아닌 존재의 권리가 더 넓게 인정되어 왔다. 2015년 아르헨티나의 한 법원은 부에노스아이레스 동물원에 갇힌 오랑우탄 산드라를 대신한 인신 보호 소송의 결과로 '대형 유인원은 법적 능력을 지닌 법적 인격체'라고 선언했다. 2018년 인도 북부의 주 우타라칸드의 고등법원은 조류와 수생 동물을 포함한 동물계 전체를,

살아 있는 사람에 상응하는 권리 · 의무 · 책임을 지닌 별개의 인격을 가진 법적 실체로 선언했다. 콜롬비아 헌법재판소는 동물이 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인정한다. 2021년 이 때문에 미국 법원도 얼마간 관여하게 되었다. 콜롬비아 당국이 야생 하마의 불임 시술 방법에 관한 사건에서 야생동물 전문가 두 명의 증거를 받아 달라고 미국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미국 법원은 그렇게 요청한 나라가 누가 소송을 낼 수 있는지 정한다고 받아들이게 하는 법을 적용했고, 그래서 이 사건의 증거 조사 목적에 한해 '막달레나강에 사는 하마 공동체'를 소송 당사자로 받아들였다. 법원을 통해서든, 입법이나 헌법 개정이나 국제 조약을 통해서든, 이제 법은 많은 동물이 법적 지위를 누릴 자격이 있는 인격체임을 인정할 때가 되었다.

어법

- **declaring a chimpanzee a person would not mean giving them the right to vote, attend school, or sue for defamation** : 동명사구 주어(declaring ~) → 단수 취급. declare + O + C(a person). mean + -ing = ~을 뜻하다(mean to V '~할 작정이다'와 구별). to vote · (to) attend · (to) sue 병렬. them = 침팬지들(a chimpanzee를 침팬지 일반으로 받은 복수).
- **It simply means giving them the most basic, fundamental right of having legal standing, rather than being considered a mere object** : right of + 동명사 = ~할 권리(of = 동격). rather than + being p.p. = ~로 여겨지는 대신(수동 동명사).
- **If the nation's leading medical research agency has decided that it will not use chimpanzees as research subjects, why are we allowing individuals to lock them up for no good reason at all?** : if + 현재완료 = 이미 결정했다면. allow + O + to V. 대명사 목적어는 구동사 사이에(lock them up). 수사의문문 = 그럴 까닭이 없다.
- **He may have died, but as he was not a human being, there is no record of his death** : may have p.p. = ~했을지도 모른다(과거에 대한 추측 — 단정이 아님). as = 이유 접속사.
- **Happy, an elephant who since 1977 has been in the Bronx Zoo, in New York, where she lives alone in a one-acre enclosure** : since + 과거 시점 → 현재완료 has been(지금까지 계속). 콤마 + where = 계속적 관계부사. one-acre = 숫자 + 명사 복합 형용사(명사는 단수). 변형 → one-acres는 오답.
- **This was the first time that the highest court of an English-speaking jurisdiction heard a habeas corpus case on behalf of someone other than a human being** : the first time that + 절 = ~한 첫 번째 일. on behalf of = ~을 대신하여. other than = ~이 아닌, ~ 이외의.
- **In 2021, that led to some involvement from a US court when authorities from Colombia asked a US court to take evidence from two wildlife experts** : that = 앞 문장 내용(콜롬비아 헌법재판소가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함). lead to + 명사 = ~으로 이어지다. ask + O + to V.
- **the US court applied legislation leading it to accept that the country making such a request decides who is recognized as able to bring a case** : leading = 현재분사 후치(legislation that led it to accept), lead + O + to V. making = 현재분사 후치. 주어 the country(단수) → decides. who = 간접의문문의 주어, be recognized as able to V.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caricature	희화화, 풍자	parody	—
lawsuit	소송	suit	—
defamation	명예훼손	libel	—
legal standing	법적 지위	legal status	—
recognition	인정	acknowledgment	denial
enclosure	우리, 울타리 친 곳	pen	—
jurisdiction	사법 관할(권)	authority	—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unanimous	만장일치의	undivided	divided
capacity	능력	ability	incapacity
liability	(법적) 책임	responsibility	immunity
sterilization	불임 시술	neutering	—
litigant	소송 당사자	party	—
amendment	개정	revision	—
entitled to	~할 자격이 있는	eligible for	ineligible for

내용 일치 침팬지를 person으로 선언 = 투표 · 학교 · 명예훼손 소송 권리가 아님(일부 반대자의 희화화) → 법적 지위라는 가장 기본적 권리 · 유럽 실험실 = 침팬지를 풀어 줌 · 2015년 = NIH 의학 연구 사용 중단 · 토미 = 행방 모름, 주인은 동물원에 팔았다고 하나 기록 없음, 죽었을 '수도' 있음 · 2022년 = 해피(코끼리, 1977년부터 브롱크스 동물원, 1에이커) · 영어권 최고 법원의 첫 비인간 인신 보호 사건 · 기각, 만장일치 아님(7명 중 2명 석방 찬성) · 2015년 = 산드라(오랑우탄, 부에노스아이레스 동물원) · 2018년 = 우타라칸드 고등법원(인도 북부의 주) · 콜롬비아 헌법재판소 · 2021년 = 하마 불임 시술 · 전문가 두 명 · 증거 조사 목적에 '한해' 소송 당사자. **밑줄 의미** for no good reason at all = 국립보건원도 쓰지 않는 침팬지를 개인이 가둘 정당한 까닭은 전혀 없다(수사의문문) / it was not a unanimous verdict = 졌지만 만장일치가 아니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remarkably) / persons entitled to legal standing = 투표권 같은 사람의 권리가 아니라 물건이 아닌 존재로 법정에 설 자격 / 58쪽 ¶1 them = 침팬지 / ¶2 it(announced that it was) = NIH / ¶5 that led to = 콜롬비아 헌법재판소가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일.

> **한 줄 요약** 침팬지를 인격체로 인정하는 것은 물건이 아닌 법적 지위를 주는 일일 뿐이며, 뉴욕 법원은 거부했지만 아르헨티나 · 인도 · 콜롬비아에서 인정이 넓어지고 있으니 이제 법은 많은 동물을 인격체로 인정해야 한다.

2-5 사례와 반론 — 굶어 죽은 애벌레와 곤충의 뇌 64쪽 ¶1 ~ 65쪽 첫 줄

원문 위치 원서 64쪽 ¶1 ~ 65쪽 첫 줄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64쪽 ¶1 첫 문장	a cabbage white butterfly	사례 — 내용 일치
▲	64쪽 ¶1 둘째 문장	swarming with … well disguised	be swarming with / 과거분사 후치
▲	64쪽 ¶1 셋째 문장	left the caterpillars alone	leave + O + 형용사
▲	64쪽 ¶1 다섯째 문장	With nothing left to eat	with + O + p.p. / 삽입 형용사구
◆	64쪽 ¶2 첫 문장	been shown in microcosm	밑줄 의미 · 수여동사 수동
★	64쪽 ¶2 첫 문장	no regard for the well-being	빈칸 · 요지 후보
▲	64쪽 ¶2 둘째 문장	How, I sometimes wonder, can	직접의문문 + 삽입절
★	64쪽 ¶3 첫 문장	we have all supposedly inherited	전언 — 단정 선지 함정
★	64쪽 ¶3 셋째 문장	to deny that animals are capable	소개된 견해 · 어법 후보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64쪽 ¶3 넷째 문장	few people could accept	어휘 반전: few ↔ many
★	64쪽 ¶3 다섯째 문장	count against it	it = 데카르트의 견해
▲	64쪽 ¶4 셋째 문장	If this were the case, it would	가정법 과거
★	64쪽 ¶5 둘째 문장	Andrew Barron ... Colin Klein	인물 — 서답형 후보
▲	64쪽 ¶5 둘째 문장	more widespread ... than	비교 + 대시 삽입
★	64쪽 ¶6 첫~둘째 문장	something that it is like to be	핵심 정의 — 요약
◆	65쪽 첫 줄	nothing that it is like	밑줄 의미 1순위

내용

지난여름 배추흰나비 한 마리가 저자가 기르던 루콜라에 알을 낳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포기는 초록 잎에 감쪽같이 숨은 초록 애벌레로 우글거렸다. 저자에게는 조금 떨어진 곳에 샐러드에 쓸 잎을 넉넉히 줄 다른 루콜라가 있었고 살충제를 쓰고 싶지도 않아서, 애벌레를 그냥 내버려 두었다. 곧 잎이란 잎은 모두 줄기만 남기고 먹혔다.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자, 아직 다음 생애 단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지 않은 애벌레들은 모두 굶어 죽었다. 저자는 오래전부터 머리로는 받아들여 온 것을 작은 규모로 눈앞에서 본 셈이었다. 진화는 자신이 만들어 낸 개별 생명체의 안녕을 전혀 돌보지 않는 비인격적 자연 과정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때때로 궁금해한다. 세계를 만든 존재가 모든 것을 알아 이 모든 일을 미리 알았으면서도 선하고 숭배받을 만하다고 믿는다면, 유신론자들은 눈앞의 세계를 그 믿음과 어떻게 조화시키는가. 기독교도는 전통적으로 인간의 고통을, 우리 모두가 물려받았다고들 하는 아담의 원죄의 결과로 설명해 왔다. 그러나 애벌레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 데카르트는 동물이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해서 이 문제를 풀었다. 그러나 개나 말에 대해서는 데카르트의 시대에도 그 견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오늘날에는 포유류와 조류의 해부 구조 · 생리 · 행동에 대한 과학 연구가 그 견해를 반박한다. 그렇다면 적어도 애벌레만큼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를 바랄 수는 없을까. 과학자들은 예전에 곤충에게는 중앙의 뇌가 없다고 설명했다. 독립된 신경절들이 곤충 몸의 서로 다른 마디를 조종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곤충이 어떻게 의식을 가질 수 있는지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학술지 PNAS(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에 실린 최근 논문은 이 모델을 거부한다. 매쿼리 대학교의 인지과학자 앤드루 배런과 철학자 콜린 클라인은 주관적 경험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동물계에 더 널리 퍼져 있고 진화의 관점에서 더 오래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주관적 경험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의식이다. 어떤 존재가 주관적 경험을 할 수 있다면 그 존재가 된다는 것이 어떠한 '무엇'이 있고, 이 '무엇'에는 즐겁거나 고통스러운 경험이 들어갈 수 있다. 이와 달리 자율주행차는 부딪칠 수 있는 장애물을 감지하고 충돌을 피하는 행동을 하는 감지기를 갖추었지만, 그 차가 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법

- **Before long, the plant was swarming with green caterpillars, well disguised against the green leaves** : be swarming with = ~로 우글거리다. 콤마 뒤 well disguised ~ = caterpillars를 꾸미는 과거분사구(= which were well disguised).
- **I had other arugula plants, some distance away, that would give me plenty of leaves for our salads, and I didn't want to use an insecticide, so I just left the caterpillars alone** : that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plants; 사이에 some distance away가 끼임). would = 과거에서 본 예상. leave + O + alone = 내버려 두다(형용사 보어).
- **With nothing left to eat, the caterpillars, not ready to begin the next stage of their life cycle, all starved to death** : with + O(nothing) + p.p.(left) = 부대상황(~이 남지 않아). to eat = nothing을 꾸미는 형용사적 to부정사. not ready ~ = 주어를 설명하는 삽입 형용사구. starve to death = 굶어 죽다.

- **I had just been shown in microcosm something I had long accepted intellectually** : show + IO + DO의 수동: 간접목적어 I가 주어가 되고 직접목적어 something은 동사 뒤에 남는다(과거완료 수동). something (that) I had accepted =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 **Evolution is an impersonal natural process that has no regard for the well-being of the individual creatures it has produced** : that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process → 단수 has). creatures (that) it has produced = 목적격 생략, it = evolution. have no regard for = ~을 전혀 돌보지 않다.
- **How, I sometimes wonder, can theists reconcile the world they observe with the belief that the world has been created by a being who is omniscient** : 직접의문문(How can theists ~?) 사이에 I sometimes wonder가 삽입된 구조라 의문문 어순(can theists)을 유지한다. reconcile A with B = A를 B와 조화시키다. the belief that = 동격 that절.
- **Descartes' solution to that problem was to deny that animals are capable of feeling pain** : 주어 solution(단수) → was. to deny = 보어 역할의 to부정사. that절 = deny의 목적어로 정동사(are)가 필요하다. 변형 → that animals being capable은 오답.
- **If this were the case, it would be difficult to imagine how insects could be conscious** : 가정법 과거(If + were, would + 원형) = '이 모델이 맞다면'이라는 가정(원문은 다음 단락에서 이 모델을 거부한다). 가주어 it + 진주어 to imagine. how절 = 간접의문문.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swarm with	~로 우글거리다	teem with	—
disguised	위장된	camouflaged	exposed
insecticide	살충제	pesticide	—
starve	굶주리다, 굶어 죽다	go hungry	—
microcosm	축소판	miniature	macrocosm
impersonal	비인격적인, 무심한	detached	personal
regard (n.)	배려, 관심	concern	disregard
reconcile A with B	A를 B와 조화시키다	harmonize	—
omniscient	모든 것을 아는	all-knowing	—
anatomy	해부 구조	structure	—
count against	~에 불리한 근거가 되다	undermine	support
widespread	널리 퍼진	prevalent	rare
subjective	주관적인	personal	objective
collide	충돌하다	crash	—

내용 일치 알을 낳은 것 = 배추흰나비 · 루콜라 · 다른 루콜라가 있었고 살충제를 쓰기 싫어 내버려 둠 · 잎을 다 먹은 애벌레 = 다음 단계를 시작하기 전에 모두 굶어 죽음 · 진화 = 개체의 안녕을 돌보지 않는 비인격적 과정 · 유신론자에게 던진 물음 = 전지하고 선한 창조자와 이 세계 · 원죄를 모두 물려받았다 = '그렇다고들 한다'(supposedly) · 데카르트 = 동물은 고통을 못 느낀다 · 개 · 말 = 그의 시대에도 받아들인 사람이 '거의 없음' · 오늘날 = 포유류 · 조류 연구가 반박 · 옛 모델 = 독립 신경절 · PNAS 논문이 거부 · 배런(인지과학자) · 클라인(철학자) = 매쿼리 대학교 · 주관적 경험 = 가장 기본적인 의식 · 자율주행차 = 감지 · 회피는 하지만 '그 차가 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은 없음. **밑줄 의미** in microcosm = 진화가 개체의 안녕을 돌보지 않는다는 큰 사실을 텃밭의 작은 사건으로 봄 / few people could accept Descartes' view = 개 · 말이 고통을 못 느낀다는 말은

당대에도 믿기 어려웠다 / there is nothing that it is like to be that car = 감지하고 반응해도 안에서 겪는 경험은 없다 → 주관적 경험과 단순한 반응의 구별 / 64쪽 ¶3 that problem = 원죄로는 애벌레의 고통을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 / count against it = 데카르트의 견해 / ¶4 this(If this were the case) = 독립 신경절 모델.

> **한 줄 요약** 텃밭의 애벌레가 굶어 죽는 것을 본 저자는 동물이 고통을 못 느낀다는 데카르트식 해법이 포유류와 조류에는 통하지 않음을 짚고, 곤충에게도 주관적 경험이 있을 수 있다는 배런과 클라인의 주장을 소개한다.

2-6 과학적 근거와 저자의 결론 – 의식의 범위와 자이나교 승려 65쪽 ¶1 ~ ¶9

원문 위치 원서 65쪽 ¶1 ~ ¶9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65쪽 ¶1 첫 문장	a functioning cortex	계속적 which + 단수 동사
★	65쪽 ¶1 둘째 문장	the midbrain rather than	빈칸 · 일치 반전 후보
▲	65쪽 ¶2 첫 문장	that, like …, is involved in	관계절 + 삽입 / 동명사 병렬
◆	65쪽 ¶2 둘째 문장	It may also provide a capacity	지칭: It = 중앙 신경절 / 추측 may
★	65쪽 ¶3 둘째 문장	about a million neurons	숫자 — 서답형 1순위
▲	65쪽 ¶3 둘째 문장	which isn't many … let alone	계속적 which / let alone
★	65쪽 ¶3 셋째 문장	the famous 'waggle dance'	내용 일치 1순위
◆	65쪽 ¶3 다섯째 문장	conscious enough to suffer	지칭 they = 애벌레 / enough to
★	65쪽 ¶4 첫~둘째 문장	plants have no structures …	일치 반전 — 있음 / 없음
★	65쪽 ¶5	some ten quintillion … insects	숫자 · 요약 후보
▲	65쪽 ¶6 첫 문장	How we are to think … depends	의문사절 주어 + 단수 동사
▲	65쪽 ¶6 둘째 문장	so much pleasure … that	so much ~ that / be worth -ing
●	65쪽 ¶7 첫 문장	at least equally probable	어휘 반전: probable ↔ improbable
◆	65쪽 ¶8 둘째 문장	its logical conclusion	밑줄 의미 1순위
★	65쪽 ¶9 첫 문장	That does not mean	요지 · 반전 함정
★	65쪽 ¶9 셋째 문장	about whose capacity	통합 사고 · 전치사 + whose

내용

사람에게서 주관적 경험은, 제대로 작동하는 대뇌 피질이 있어야 하는 자기 인식 같은 더 높은 수준의 의식과 구별된다. 주관적 경험에는 피질이 아니라 중뇌가 관여하며, 피질이 크게 손상된 뒤에도 이어질 수 있다. 곤충에게는 포유류의 중뇌처럼 감각 정보를 처리하고 목표를 고르고 행동을 이끄는 데 관여하는 중앙 신경절이 있다. 이 신경절이 주관적 경험의 능력도 줄 수 있다. 꿀벌의 뉴런은 약 100만 개로, 우리의 약 200억 개 신피질 뉴런에 견주면 많지 않고, 최근 들쇠고래의 신피질에서 발견된 370억 개는 말할 것도 없다. 그래도 꽃 · 물 · 둥지 후보지의 방향과 거리를 알려 주는 유명한 '흔들기 춤(waggle dance)'을 추고 알아들을 만큼은 된다. 애벌레에게는 (우리가 아는 한) 그런 능력이 없지만, 굶어 죽어 가며 고통을 느낄 만큼의 의식은 있을지 모른다. 배런과 클라인에 따르면 식물과 해파리 · 회충 같은 단순한

동물에게는 의식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가 없고, 갑각류와 거미는 곤충처럼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다. 곤충에게 주관적 경험이 있다면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의식이 있다. 스미스소니언 협회의 추정으로는 어느 한순간에 살아 있는 곤충이 약 1,000경(10,000,000,000,000,000,000) 마리이기 때문이다. 이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는 곤충의 주관적 경험이 어떠할 수 있다고 믿느냐에 달려 있는데, 여기서 구조를 비교하는 것은 별로 알려 주는 것이 없다. 어쩌면 애벌레들은 저자의 루콜라를 실컷 먹으며 큰 즐거움을 얻어서, 비참하게 죽었는데도 살 만한 삶을 살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반대일 가능성도 적어도 그만큼은 된다. 그토록 많이 번식하는 종에서는 많은 새끼가 알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굶주릴 것이다. 서양에서는 개미를 밟지 않으려고 길에서 개미를 쓸어 내는 자이나교 승려를 보고 웃음 짓곤 하지만, 저자는 연민을 논리적 결론까지 밀고 나간 그 승려들을 오히려 존경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곤충 권리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는 아직 곤충의 주관적 경험에 대해 그럴 만큼 알지 못하고, 어쨌든 세상은 그런 운동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먼저 고통을 느끼는 능력에 대한 의심이 훨씬 적은 척추동물의 이익에까지 진지한 고려를 넓히는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

어법

- **In humans, subjective experience is distinguishable from higher levels of consciousness, such as self-awareness, which requires a functioning cortex** : be distinguishable from = ~와 구별된다. 계속적 which = self-awareness(단수 → requires). functioning = 현재분사(작동하는).
- **Subjective experience involves the midbrain rather than the cortex and can continue even after massive damage to the cortex** : A rather than B = B가 아니라 A. 주어 하나에 involves와 can continue가 병렬. damage to = ~에 대한 손상(전치사 to).
- **Insects have a central ganglion that, like a mammalian midbrain, is involved in processing sensory information, selecting targets, and directing action** : 주격 관계대명사 that과 동사 is 사이에 like ~가 삽입. be involved in + 동명사 셋(processing · selecting · directing) 병렬.
- **Honeybees have about a million neurons, which isn't many compared to our roughly 20 billion neocortical neurons, let alone the 37 billion recently found in the neocortex of a pilot whale** : 계속적 which = 앞의 수(약 100만 개) → 단수 isn't. compared to = ~에 비해. let alone = ~은 말할 것도 없고(부정 문맥 뒤). found = 과거분사 후치.
- **But they may still be conscious enough to suffer as they starve** : 형용사 + enough to V = ~할 만큼 충분히(enough는 형용사 뒤). as = ~하면서(동시). may = 추측 — 단정이 아님.
- **How we are to think about that depends on what we believe their subjective experiences could be like** : 의문사절(How we are to think ~) 주어 → 단수 depends. be to V = 당위(~해야 하는가). what ~ could be like = '어떠할 수 있는가'의 간접의문, we believe = 삽입.
- **Perhaps the caterpillars gained so much pleasure from feasting on my arugula that their lives were worth living, despite their miserable deaths** : so much + 명사 + that = 너무 많은 ~을 얻어서 …하다. be worth -ing = ~할 가치가 있다. despite + 명사(전치사). Perhaps = 추측.
- **We need first to complete the extension of serious consideration to the interests of vertebrate animals, about whose capacity for suffering there is much less doubt** : 전치사 + whose + 명사(= there is much less doubt about their capacity for suffering). extension of A to B = A를 B에까지 넓힘. much = 비교급(less) 강조.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distinguishable	구별할 수 있는	separable	indistinguishable
massive	대규모의, 심한	severe	slight
ganglion	신경절	nerve center	—
diverse	다양한	varied	uniform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awareness	의식, 알아차림	consciousness	unawareness
feast on	실컷 먹다	gorge on	—
miserable	비참한	wretched	happy
probable	있을 법한	likely	improbable
prolifically	(새끼를) 많이	abundantly	sparingly
tread on	밟다	step on	—
compassion	연민	sympathy	indifference
vertebrate	척추동물(의)	—	invertebrate

내용 일치 자기 인식 = 피질 필요 · 주관적 경험 = 중뇌, 피질이 크게 손상돼도 이어질 수 있음 · 곤충의 중앙 신경절 = 포유류 중뇌처럼 감각 처리 · 목표 선택 · 행동 지시 · 꿀벌 약 100만 / 사람 신피질 약 200억 / 들쇠고래 370억 · waggle dance = 꽃 · 물 · 둥지 후보지의 방향과 거리 · 애벌레도 고통을 느낄 '수도' · 식물 · 해파리 · 회충 = 구조 없음 / 갑각류 · 거미 = 있음 · 1,000경 = '어느 한순간'의 수(스미스소니언 협회) · 즐거움 vs 비참 = 적어도 똑같이 가능 · 승려 = 존경해야(저자) · 곤충 권리 운동 = 아직 아님. **지칭** 65쪽 ¶2 It may also provide = 중앙 신경절 / ¶3 it is still enough = 꿀벌의 약 100만 개 뉴런 / they may still be conscious = 애벌레 / ¶6 think about that = 훨씬 많은 의식이 있다는 것 / ¶8 treading on them = 개미 / ¶9 That does not mean = 승려를 존경해야 한다는 것 / to do that = 곤충 권리 운동을 시작하는 일.

> **한 줄 요약** 곤충에게도 주관적 경험이 있을 수 있어 세상의 의식은 생각보다 많을지 모르지만, 저자는 곤충 권리 운동보다 척추동물의 이익을 먼저 진지하게 고려하자고 한다.

바른에듀케이션 실전 변형 모의고사 (원서 강독 평가 대비)

Ethics in the Real World [Vol. 2 PERSONS]

범위	If Fish Could Scream · Who Is a Person? · Are Insects Conscious? (원서 PDF 52~65쪽)	시간	40분	성명	

※ 객관식 16문항(90점) + 서답형 1문항(10점) = 100점. 지문은 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 쓴 글입니다. 유형 순서는 미추홀외고 지필평가 순서를 따릅니다. 끝난 뒤 '정답과 해설'로 채점합니다.

1.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Some opponents mock these lawsuits as if they would let chimpanzees vote, go to school or sue for libel. Declaring a chimpanzee a person means nothing of the kind; it means only granting the most elementary right of all, to stand before the law as someone rather than as a mere object. European labs have already released their chimpanzees, and 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aid in 2015 that it would stop using them in medical research. Why, then, let private individuals cage them for no good reason? Through courts, new laws, constitutional changes or treaties, the law should now accept that many animals are persons with legal standing.

① Chimpanzees should have the right to vote.
② Research on chimpanzees should be expanded.
③ Only courts can decide who is a person.
④ The law should recognize many animals as persons.
⑤ Animals are safest when treated as property.

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Suppose today's fishing could go on forever, which it cannot. It would then be comforting to think the killing is harmless because fish feel nothing. Yet fish have nervous systems close enough to those found in birds and mammals to suggest that they do feel pain. After an experience that would hurt other animals, they act in ways that point to pain. (The idea that fish forget quickly is a myth.) They learn to avoid electric shocks, and painkillers ease their signs of distress. Victoria Braithwaite showed that fish feel pain and are far cleverer than most people assume, and a scientific panel advising the European Union agreed in 2009.

① Why Today's Fishing Can Last Forever
② Fish Memory: Shorter Than We Think
③ Painkillers Do Fish More Harm Than Good
④ Birds and Mammals Feel More Pain Than Fish
⑤ What the Evidence Says About Fish and Pain

3.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People in the West often find it amusing that Jain monks brush ants off their path so as not to step on them. The author thinks we should admire the monks instead, for they have followed compassion to where it logically leads. Yet that does not mean it is time for a movement for insect rights. We still know too little about what insects experience to justify such a campaign, and the world is nowhere near ready to take it seriously. First we must finish giving serious weight to the interests of vertebrates, animals whose ability to suffer is much less in doubt.

① Compassion for insects is admirable, but vertebrates come first.
② A campaign for insect rights should begin now.
③ Jain monks take compassion too far.
④ Insects suffer more than vertebrates do.
⑤ Science already knows what insects experience.

4. 밑줄 친 Not for fish.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In most countries, people agree that if animals are slaughtered for food, they should die without suffering. Slaughter rules usually demand that an animal be made unconscious at once before it is killed, or that death come instantly. Not for fish. No rule calls for humane killing of wild fish caught at sea, and in most places none covers farmed fish either. Fish hauled up in trawlers' nets are tipped onto the deck and left to suffocate. In longline fishing, lines 50–100 kilometres long carry hundreds, sometimes thousands, of baited hooks, and a hooked fish may stay fully conscious for hours as it is dragged along.

① Most people do not kill fish for food.
② Fish are left out of the rule of killing without suffering.
③ Fish feel no pain when they are killed.
④ Religious law forbids the slaughter of fish.
⑤ Farmed fish are protected by stricter rules.

5. 밑줄 친 it is not merely a thing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At New York's Court of Appeals, five judges heard Steve Wise, who founded the Nonhuman Rights Project, and then put a natural question to him: isn't legal personhood only for humans? Wise answered with earlier rulings showing that it is not reserved for humans. In civil law, being a person means counting as an entity in your own right, which is why corporations, rivers, holy books and mosques can all be legal persons. The court still refused Tommy's lawyers permission to appeal, yet Judge Eugene Fahey plainly doubted the ruling. In a separate opinion he called the question of an animal's right to liberty deep and far-reaching, one we will finally be unable to ignore. A chimpanzee may arguably not be a 'person', he wrote, but it is not merely a thing.

① A chimpanzee has exactly the same rights as a human.
② A chimpanzee is best kept in a zoo.
③ A chimpanzee deserves more than to be treated as property.
④ The court had no authority to hear the case.
⑤ A chimpanzee is less valuable than a river.

6.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6.0점]

Sadly, Tommy can no longer be traced. ① His former owner insists that ② he sold the chimpanzee to a zoo, yet the zoo has no paperwork mentioning ③ him. ④ He might have died, but because ⑤ he was not human, nobody recorded his death. Even so, the Nonhuman Rights Project kept fighting for animals' rights. In 2022, New York's Court of Appeals heard its case for Happy, an elephant kept by herself in a one-acre enclosure at the Bronx Zoo since 1977. Never before had the highest court anywhere in the English-speaking world heard such a case for a nonhuman. Again the court said no, though two of its seven judges sided with freeing her.

①
②
③
④
⑤

7.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5.4점]

In humans, the simplest kind of consciousness, subjective experience, can be told apart from higher kinds like self-awareness, which depends on a working cortex. Subjective experience relies instead on the midbrain and may survive even severe damage to the cortex. Insects possess a central ganglion which, much like a mammal's midbrain, handles sensory input, picks targets and guides action, and it may give them subjective experience as well. Honeybees, for instance, have roughly a million neurons, a small number beside the 20 billion or so in our neocortex. Yet that is enough for them to perform and decode the famous 'waggle dance', which shows other bees how far away and in which direction flowers, water or possible nest sites lie. Plants, jellyfish and roundworms lack any such structures, but spiders and crustaceans have them.

① 자기 인식은 대뇌 피질 없이도 가능하다.
② 주관적 경험은 피질이 크게 손상되면 반드시 사라진다.
③ 꿀벌의 춤은 꽃 · 물 · 둥지 후보지의 방향과 거리를 알린다.
④ 꿀벌의 뉴런 수는 사람의 신피질 뉴런 수보다 많다.
⑤ 해파리와 거미에게는 의식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가 없다.

8.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4점]

To grasp the scale of this, compare it with land animals. According to the U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some 77 billion mammals and birds are slaughtered every year to feed people, about ten for each person on Earth. Taking the lower figure of one trillion fish, the equivalent number for fish is 125, and even that omits billions caught illegally, unwanted 'bycatch' that is accidentally netted and then discarded, and the live fish fixed to longline hooks as bait. Many fish are eaten only indirectly, ground into feed for factory-farmed chickens or fish. On a typical salmon farm, at least 1.5 kg of wild fish go into each kilo of salmon, and since feed fish tend to be smaller than the fish people buy, the ratio in individual lives is far worse.

① 해마다 먹으려고 죽이는 새 · 포유류는 약 770억 마리다.
② 하한 추정치로는 물고기가 한 명당 125마리꼴이다.
③ 불법 어획과 버려지는 혼획은 이 수치에서 빠져 있다.
④ 사료용 물고기는 대개 식용 물고기보다 작다.
⑤ 연어 1kg에 드는 야생 물고기는 1.5kg이 안 된다.

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6.0점]

Last summer, eggs laid by a cabbage white butterfly hatched on the author's arugula, and soon the plant was crawling with green caterpillars, ① well hidden against the leaves. As he had other arugula plants for his salads and wished to avoid insecticide, he simply left the caterpillars ② alone. Before long every leaf ③ had been eaten down to the stalk, and the caterpillars, not yet ready for the next stage of life, all starved. This showed him, on a small scale, a truth he had long accepted: evolution is an impersonal process with no concern for the welfare of the creatures ④ it produces. Adam's original sin cannot explain it, for caterpillars do not descend from Adam. Descartes' way out was to deny that animals ⑤ being capable of feeling pain.

①
②
③
④
⑤

10.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Courts elsewhere have gone further. In 2015, after a habeas corpus action for Sandra, an orangutan (A) [keeping / kept] at the Buenos Aires Zoo, an Argentine court ruled great apes to be legal persons. Three years later, the High Court of Uttarakhand, in northern India, declared the whole animal kingdom, birds and water creatures included, to be legal entities. In 2021, authorities from Colombia, (B) [which / where] the Constitutional Court grants animals standing, asked a US court to hear testimony from two experts on wildlife in a dispute over how to sterilize wild hippos. The US court applied a law under which the requesting country decides who may bring a case, so it accepted, solely for taking that evidence, that the hippos of the Magdalena River (C) [was / were] litigants.

	(A)	(B)	(C)
①	kept	which	were
②	keeping	where	was
③	kept	where	were
④	keeping	which	were
⑤	kept	where	was

1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6.0점]

Fish may even see themselves as ① distinct individuals. In 2022, researchers led by Osaka City University's Masanori Kohda tested the cleaner wrasse, a fish that feeds on parasites found on other creatures' skin and is therefore ② indifferent to coloured spots on fish. The researchers placed coloured marks in the throats of 18 cleaner fish while they were ③ unconscious under anaesthetic. When the fish woke up, they were placed before a mirror, the standard test of whether an animal recognizes itself. On seeing the mark in the mirror, all but one ④ scraped their own throats, not the reflection's, which showed that they ⑤ identified the image as themselves.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However hard a court may find it to read the law as making a chimpanzee a person, there are strong philosophical grounds for calling it one in the true sense of the word. 'Person' is a word of Roman origin, and early Christian theologians used it in their debates over the Trinity, the teaching of God as three persons in one—father, son and holy spirit. Christians believe, however, that only one of these three ever lived as a human. So if 'person' simply meant _____, the teaching would flatly contradict Christian belief. In our own time, too, film audiences easily accept that E.T. or the Na'vi of Avatar are persons although they are not Homo sapiens, and readers of Jane Goodall can see the same in the great apes she describes.

① 'human being'
② 'holy spirit'
③ 'Roman citizen'
④ 'divine being'
⑤ 'living creature'

13.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6.0점]

To find the number of sentient creatures killed, one must estimate the average weight of each species and divide the total tonnage reported by that figure.

Commercial fishing also relies on gill nets, which are walls of fine mesh that often catch fish by the gills. (①) With their gills squeezed shut, the fish may choke to death; if not, they can stay trapped for hours until the nets come in. (②) So how many fish do we put through such terrible deaths? (③) This is hard to say, since official statistics overlook that every fish is a separate creature and record only the tonnage of each species caught. (④) Alison Mood and Phil Brooke carried out exactly this calculation and put the yearly toll at one to two trillion fish. (⑤)

14.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5.4점]

Scientists once claimed that insects have no central brain; separate ganglia, they said, controlled the different segments of an insect's body. ① If that were true, it would be hard to see how insects could be conscious at all. ② A recent scientific article, however, rejects this picture. ③ In 2015, an Argentine court ruled that great apes count as legal persons. ④ Its authors, Andrew Barron and Colin Klein of Macquarie University, argue that subjective experience may be spread more widely across animals, and may be older in evolution, than we suppose. ⑤ Such experience is consciousness in its most basic form: there is something it is like to be a being that has it, whereas a driverless car, though it senses obstacles and steers around them, is not like anything from the inside.

15.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When the author was a boy, his father often took him for walks beside a river or along the sea, and on the way they would pass people fishing, some of them reeling in their lines with fish struggling on the hooks.

(A) On another walk, beside a calm stream, they saw a man sitting quietly and watching his line, looking entirely content. Right next to him, the fish he had already caught lay flapping helplessly, still gasping in the open air.

(B) On one of these outings, the boy watched a man pull a small fish from a bucket and push it, still wriggling, onto a bare hook so that it could serve as bait.

(C) Later, the father told his son he could not see how a person could enjoy an afternoon of pulling fish like those from the water and then leaving them to die slowly.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16.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The Smithsonian Institution estimates that about ten quintillion insects are alive at any given moment. If they have subjective experiences, the world holds far more consciousness than we may have imagined. How we ought to view this depends on what we think those experiences might be like, and here comparing nervous structures tells us little. Perhaps the caterpillars that devoured the author's arugula enjoyed their feast so much that life was worth living for them, despite their wretched end. But the reverse is at least as likely: in species that breed in such huge numbers, many young begin to starve the moment they hatch.

→ If insects are conscious, the world contains far (A) _____ consciousness than we thought, but whether their lives are good or bad for them remains (B) _____.

① less ..... uncertain
② more ..... obvious
③ less ..... settled
④ more ..... uncertain
⑤ more ..... irrelevant

[서답형 1] 다음 글을 읽고 <QUIZ>의 (1)~(7)번에 해당하는 답을 <보기>에서 찾고, 그에 해당하는 알파벳 기호(A~Z)를 순서대로 나열하여 완성되는 한 단어를 쓰시오. (단, 대소문자 여부는 채점에 반영하지 않음.) [10점, 부분 점수 없음]

Every year, humans kill an estimated one to two trillion fish, and in 2009 a scientific panel advising the European Union decided that, on balance, the evidence shows fish feel pain. Steve Wise, founder of the Nonhuman Rights Project, argued that legal personhood is not reserved for humans. In 2022 New York's highest court turned down a case for Happy, an elephant at the Bronx Zoo, although two of its seven judges wanted to free her. An Argentine court called great apes legal persons after a case for Sandra, an orangutan held at the Buenos Aires Zoo. Honeybees have only about a million neurons, against roughly 20 billion in the human neocortex, and the author says we should admire Jain monks, who brush ants aside so as not to tread on them.

<QUIZ>

(1) What is the lower estimate of the number of fish killed each year?

Answer for (1): _____

(2) In what year did a scientific panel advising the European Union conclude that fish feel pain?

Answer for (2): _____

(3) Who founded the Nonhuman Rights Project?

Answer for (3): _____

(4) Is it true or false that the 2022 decision on Happy was unanimous?

Answer for (4): _____

(5) In which zoo was the orangutan Sandra kept?

Answer for (5): _____

(6) About how many neurons does a honeybee have?

Answer for (6): _____

(7) Which monks does the author say we should admire?

Answer for (7): _____

<보 기>

A. a million	N. True
B. 20 billion	O. Victoria Braithwaite
C. Buenos Aires Zoo	P. 77 billion
D. 2013	Q. 2015
E. one trillion	R. Christian
F. Bronx Zoo	S. Masanori Kohda
G. Eugene Fahey	T. 2009
H. Steve Wise	U. 125
I. False	V. Florida
J. 37 billion	W. 1977
K. 2022	X. ten quintillion
L. Jain	Y. Andrew Barron
M. two trillion	Z. 2018

정답: _____

PART 4

파이널 – 손으로 복원한다

평가 2~3일 전.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

4-1. 핵심 문장 12선 –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

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

01 한번은 한 남자가 양동이에서 작은 물고기를 꺼내는 것을 보았다. (지각동사 saw + O + 원형)

02 도살 규정은 죽이기 전에 동물을 즉시 의식을 잃게 하라고 요구한다. (require that + S + 동사원형)

03 물고기의 신경계는 새의 것과 충분히 비슷해서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보여 준다. (sufficiently ~ to V / those)

04 물고기는 고통을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믿는 것보다 훨씬 영리하다. (not only A but also B)

05 민법에서 인격체라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실체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to V is to V)

06 'person'이 '인간'을 뜻한다면 그 교리는 기독교 신앙과 어긋날 것이다. (가정법 과거)

07 침팬지를 인격체로 선언하는 것이 투표권을 준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동명사 주어 / mean + -ing)

08 토미는 죽었을지도 모르지만, 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없다. (may have p.p.)

09 먹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자 애벌레들은 모두 굶어 죽었다. (with + O + p.p. / 형용사적 to부정사)

10 그것이 사실이라면, 곤충이 어떻게 의식을 가질 수 있는지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가정법 과거 / 가주어 it)

11 애벌레들은 굶어 죽어 가며 고통을 느낄 만큼은 의식이 있을지도 모른다. (형용사 + enough to V)

12 그 많은 곤충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는 그들의 주관적 경험이 어떠할 수 있다고 우리가 믿느냐에 달려 있다. (의문사절 주어 + 단수 동사 / be to V)

4-2. 숫자 · 고유명사 복원표 — 보지 않고 채우기

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4로 돌아간다.

항목	답
fishcount.org.uk의 두 사람 / 연간 죽는 물고기	
FAO — 새 · 포유류 수 / 1인당 / 물고기 1인당	
연어 1kg 생산에 드는 야생 물고기	
2019년 양식 물고기 / 어분 · 어유용 물고기	
가장 유리한 추정 — 죽은 / 팔린 물고기	
『Do Fish Feel Pain?』의 저자 / 소속	
물고기의 고통을 인정한 과학 패널 — 해 / 곳	
거울 실험 — 연구팀장 / 물고기 / 결과	
토미 사건 — 해 / 법적 절차 / 보내려던 곳	
비인간 권리 프로젝트 창립자 / 별도 의견을 낸 판사	
NIH가 의학 연구에서 침팬지 사용 중단을 발표한 해	
해피 — 동물 / 1977년부터 있는 곳 / 우리 넓이	
해피 사건(2022년) 판사 수 / 석방 찬성	
산드라 — 동물 / 동물원 / 판결 해	
동물계 전체를 법적 실체로 선언한 법원 / 해	

항목	답
하마 사건 — 해 / 증거를 낸 사람 / 강	
곤충의 뇌를 다시 본 두 학자 / 소속	
꿀벌 · 사람 신피질 · 들쇠고래 신피질의 뉴런 수	
한순간에 살아 있는 곤충 수 / 추정 기관	

4-3. 통합 사고 문제 — 세 편을 잇는 자리

문제

「If Fish Could Scream」에서 저자는 물고기의 신경계가 새 · 포유류의 신경계와 충분히 비슷해 물고기도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하고, 2009년 EU 과학 패널의 결론을 들었다(53쪽 ¶3~¶4). 「Are Insects Conscious?」에서는 주관적 경험에 즐겁거나 고통스러운 경험이 들어갈 수 있고, 애벌레도 굶어 죽으며 고통을 느낄 만큼 의식이 있을지 모른다고 썼다(64쪽 ¶6, 65쪽 ¶3). 한편 「Who Is a Person?」에서 저자는 이제 법이 많은 동물을 법적 지위를 가진 인격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58쪽 ¶6 ~ 59쪽 첫 줄), 곤충에 대해서는 권리 운동을 시작할 때가 아니라고 했다(65쪽 ¶9). 이를 바탕으로, 저자가 곤충 권리 운동보다 척추동물의 이익을 먼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본 까닭이 된 능력을 빈칸에 영어 한 단어로 쓰고, 그 근거를 「If Fish Could Scream」과 「Are Insects Conscious?」에서 하나씩 들어 영어 두 문장으로 쓰시오. (각 문장에 그 편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먼저 따질 능력: We need first to complete the extension of serious consideration to the interests of vertebrate animals, about whose capacity for _____ there is much less doubt.

근거 1

근거 2



BARUN

바른 가르침, 내일을 바꾸는 교육

We exist to change tomorrow for every student through right teaching.

바른에듀케이션 ·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